

불교경전 번역사업 어디까지 와 있나

동국역경원 등서 대장경 번역출판...인력 및 자금조달이 문제

올해로 불기 2537년을 맞이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으니 매우 오랜 시간을 우리민족은 불교와 함께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불경을 번역하는 일은 불교의 역사에 비해 빈약한 면을 감출 수 없는 듯하다. 물론 經 이외에도 律, 論 등 수많은 경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역경사업이 불교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에는 경전에 집착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선불교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불교계인사들은 말한다.

대장경 134권 번역출판된 상태

우리나라에서 경전 번역은 동국역경원, 경전연구소, 경전읽기모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역경사업이 시작된 것은 30년 전인 1964년 동국역경원의 개원에서 비롯된다.

1964년 7월 21일 동국대 부설로 개원한 동국역경원은 개원 1년만인 65년 최초의 한글대장경으로 아함부 1책 장야함경 2천권을 펴냈다. 역경원 출범 초기 전체 經藏의 1/3을 차지하는 반야부의 「大般若經」 10책을 우리말로 번역 출간함으로써 시작된 역경사업은 지난해 「대반야경」 1권부터 3백권까지의 경전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지금까지 250권 예정으로 펴낼 경전중에서 134권을 출간한 상태이다.

역경원이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아함, 본연, 반야, 법화, 열반, 석경론, 비담, 중관, 화엄, 보적, 경집, 율, 유가, 논집, 한국고승, 사전, 사회, 남전부 등 19부로 나뉘어 있는데, 역경원의 역경사업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66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70년도까지 매년 8책 각 4천권씩을 발간하는 등 역경원 초기에는 활기찬 역경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 국고보조가 줄어들면서 71년에는 8책을 발간했으며, 72년에는 3책, 73년에는 6책, 74년에는 4책을 각 3천권씩 발간, 연간 출판량이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국고 보조금은 1978년에 완전히 단절되어 지금까지 역경사업에 암운을 드리우게 되었다. 1986년 역경원은 세로쓰기의 책들을 가로쓰기로 체제와 장정을 달리 편집한 신판을 펴냈다. 역경원이 89년까지 펴낸 책은 총 111책이었고, 지난해에는 6책을 각 2

대장경 번역은 불교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64년 이후 지금까지

134권의 경전이 출간되었지만

250권 예정의 전체출간 종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미 80년대에 완료한

역경사업의 우리나라 실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천권씩 발간함으로써 「고려대장경」에 있는 중요한 경전의 대부분을 번역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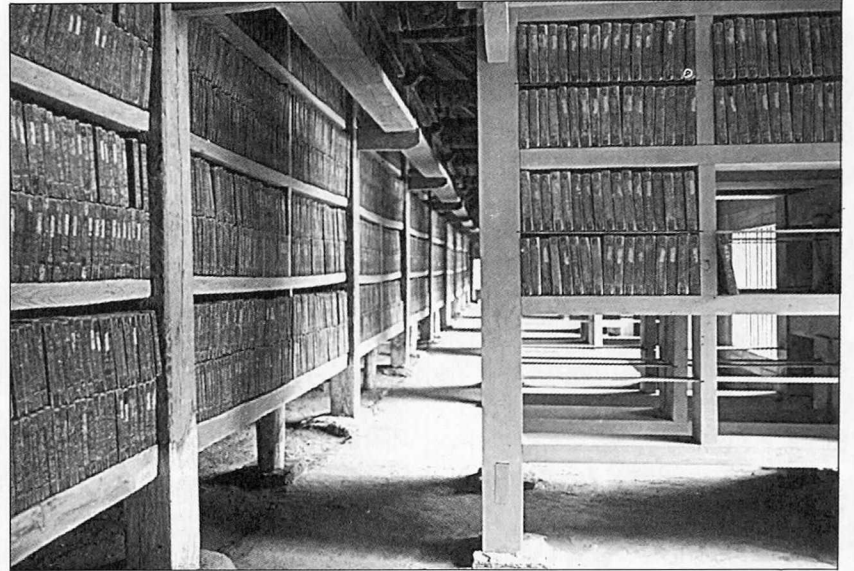
한편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평불협·회장 송월주)은 최근 발간된 기관지 「하나로」 4월호를 통해 북한에서 발간한 「팔만대장경 해제본」 90년판을 국내에 수입·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난 87년 전25권으로 「팔만대장경 해제」가 첫 출간되었으며, 90년에는 15권으로 다시 묶여져 나왔다. 신국판 크기로 각권 5백여면의 분량으로 발간된 「팔만대장경 해제」는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벽초 홍명희의 아들인 홍기문씨 등 40여명이 필진을 구성해 「고려속장경」의 경전 6천여권의 내용을 분석소개한 것이다. 북한 사회과학 연구원은 이미 80년대에 「고려속장경」을 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만대장경 해제」 재판 일러두기에 「해제에서는 대장경과 불교연구에 참고자료로 이용될수 있도록 기본사상과 내용을 의역하여 체계적으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힘썼다」고 밝히고 있다. 평불협은 정부의 허가가 나오는데도 우선 20질을 선착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735-5558).

불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번역상의 문제점들

불경이 단순한 외국도서가 아니라 한 종교의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그 번역작업은 특히 어려운 것에 속한다.

역경작업은 텍스트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고, 둘째는 팔리어 경전을 번역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자로 된 경전을 번역하는 것이다.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팔만대장경판본」.

최근에는 영어나 독일어를 비롯해서 일본어로 된 경전도 번역 텍스트로 쓰고 있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경전이나 팔리어경전은 초기의 불교를 아직까지 잘 나타내고 있다하여 텍스트로서의 신뢰감이 깊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들 언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관계로 스리랑카 등지에서 교육을 받은 일부 소장학자들에 의해 역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팔리어경전을 영어로 옮긴 것들을 다시 국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돈연스님이 주도하고 있는 경전읽기모임은 팔리어를 직접 국역화하고 있기도 하다.

경전번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류도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역에 따른 의미의 애매성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역과 직역 사이에서 어느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더 잘 표현했느냐는 종교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결점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고려대장경도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부처님의 말씀'을 원래 그대로 간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문경전을 번역하는 것도 어차피 중역일 수 밖에 없는 일이어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번역도 더러 눈에 띈다고 한다. 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이 뜻글자인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는데에 오역이 많다는 일부의 지적은 여타 번역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오류인 듯하다.

국고보조금 있어야 할 역경사업

번역상의 오류 외에도 일부에서는 「고려대장경」의 가치가 점차 유물적 측면에 국한돼가

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자들 대부분이 「고려대장경」이 아닌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1926)을 참고문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장경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는 국역경전 출판물에 의해 더 크게 제기되는데, 역경원이 펴낸 「한글대장경」 이외에 국역 경전이 원문 없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학자들의 연구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대장경 번역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역경에 종사할 인력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앞서도 지적한 자금 조달문제이다. 역경사업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역경원 초대원장 운허스님을 비롯해서 탄허스님, 권상노박사, 조명기박사 등이 있으나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재는 역경원에서 필자를 위촉해 역경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필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지금으로서 역경사업의 어려운 재정 타개책은 한글대장경의 원활한 보급에 있을 뿐이지만, 그 보급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번역된 경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역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린씨는 「대장경에 대한 번역은 작게 불교계의 경전을 번역한다는 것이지만 크게는 우리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한 작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필요한 작업임을 역설한다.

— 이성수 기자